



식약처·농식품부·해썹인증원, 생산단계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인증한다

-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 실시
- 곤충 생산(사육)부터 곤충활용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주기 안전관리 지원
-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함께 식용곤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잔류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HACCP(해썹)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사업이다.

* 세계 식용 곤충 시장 전망(출처: Grand View Research)

: (‘24년) 약 13.5억 달러 → (‘30년) 약 43.8억 달러(연평균 25% 성장)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시범사업은 식약처, 농식품부, 해썹인증원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재 등 규제 지원과 인증 관련 제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단계 제도화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해썹인증원***은 인증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원료 등재, 기준·규격 마련, 인증제도 총괄

** 농식품부: 「곤충산업법」상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제도 마련

*** 해썹인증원: 서류검토, 현장평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해썹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증 내용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기준 운영 체계 및 인증표시]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식용곤충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식량자원인 식용곤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全) 주기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제도는 식용곤충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증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제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축산물 분야 HACCP 심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용곤충 사육 단계 인증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인증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도 실시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농식품부·해썹인증원은 보다 많은 영업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용곤충 사육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 공개했다.

* 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프레스시 → HACCP 절차안내 → 민원서식

식약처·농식품부·해썹인증원은 앞으로도 식용곤충의 원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업계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1.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주요 내용
 2. 곤충 생산 현황 자료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책임자	과 장	박진국 (043-719-2851)
		담당자	사무관	김은정 (043-719-2852)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책임자	과 장	이승욱 (044-201-2131)
		담당자	주무관	김민정 (044-201-213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책임자	본부장	서연범 (043-928-0110)
		담당자	팀 장	정계훈 (043-928-0121)
협조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 장	장문익 (043-719-2411)
		담당자	연구관	안현주 (043-719-2415)




□ 적용 대상

- 곤충생산업(종류: ^{식용}흰점박이꽃무지유충, ^{식용}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갈색거저리유충
	
(<i>Protaetia brevitarsis</i>)	(<i>Tenebrio molitor</i> L.)

□ 인증기준

- 총 42개 항목(선행요건 34개 항목 + HACCP 관리 8개 항목)
- 신규 인증 : 처리기한 40일(수수료 없음, 인증 유효기간 3년)
- * (적합) 구비서류(5종) 적합 + 인증기준(총 42개 항목) 평가 결과, 85% 이상

구분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인증표시
구비서류 (5종)	• 인증 신청서, 곤충생산업 신고증, 곤충설명서, 곤충 사양관리 절차도, 사육장 평면도	
인증기준 (총 42개 항목)	• [선행 34] 사육시설(10개), 위생관리(10개), 먹이원·용수관리(5개), 사양·질병(6개), 출하관리(3개) [HACCP 8] HACCP관리(8개)	

※ (신청) 해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농장사료팀 : ☎ 043-928-0122

□ 식용곤충 생산단계 위해요소

구분	주요 위해요소	발생 원인	관리 방안
생물학적	살모넬라,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곰팡이 등	사육환경 오염, 먹이원 오염, 종사자 위생관리 미흡	사육시설 위생관리, 종사자 교육, 출하 전 검사
화학적	중금속(납·카드뮴·비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곰팡이독소	사료·용수 오염, 사육환경 오염, 약품 부적절 사용	먹이원·용수 관리, 사양관리 기준 준수
물리적	이물(돌·금속·유리·플라스틱 등), 곤충 사체, 이종 곤충	사육시설 노후화, 포장 부실, 교차오염	사육시설 관리, 출하 관리, 포장 위생관리

※ 출처: 유럽식품안전청(EFSA,2015), 「Scientific Opinion on the safety of insects as food and feed」, 농촌진흥청 식용곤충 표준사육 지침서, 식약처 식용곤충 안전성 평가체계

□ 곤충 정의

- (곤충)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곤충산업법」 제2조)
- (식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곤충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 * (식용 10종)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 곤충 생산 현황

- 곤충생산업 2,394개소 中 식용곤충 생산업이 약 70% 차지('24년)
- 곤충 판매 금액은 매년 증가('20년, 413억 원→'24년, 528억 원), 식용곤충 판매 금액은 '20년 대비 '24년 약 12.5%(약 30.6억 원) 증가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곤충생산업	2,706	2,706	2,377	2,317	2,394
└ 식용곤충 생산업 (비중 %)	2,235 (82.6%)	2,207 (81.6%)	1,862 (78.3%)	1,756 (75.8%)	1,727 (72.1%)
곤충 판매 금액	413.9	445.9	449.2	473.2	528.2
└ 식용곤충 판매 금액(비중 %)	240.3 (58.1%)	258.6 (58.0%)	232.9 (51.9%)	247.9 (52.4%)	270.9 (51.3%)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현황실태조사

- 식용곤충 中 흰점박이꽃무지유충, 갈색거저리유충 생산 비중 높음
- '24년 기준 식용곤충 생산업(1,727개소) 중 약 46%가 흰점박이꽃무지유충(793개소), 약 17%가 갈색거저리유충(296개소) 생산